



칭찬하고 응원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생활의 활력소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합니다. <편집자 주>

푸른신문에서는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칭찬과 응원, 미담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푸른신문 '칭찬하고 응원해요'란에 들어갈 가족 또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힘이 되는 메시지와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실어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 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하고 응원해요'는 계속됩니다.



*접수는 이메일 pr5726000@naver.com로 보내주세요.

푸른방송 방송팀 전정현 대리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업무부서는 다르지만,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스칠 때마다 언제나 한결같이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보기 좋은 전정현 대리를 칭찬합니다. 하루를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전정현 대리! 이야기도 귀담아들어 주고,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는 전정현 대리! 나이 차이는 있지만, 대화를 나누게 되면 "가슴이 따뜻하고 정이 많구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서로 이야기하며 더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면서 언제나 전정현 대리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칭찬하는 사람:안병오>



왼쪽에서 세번째 노영아 씨

활기차고 발랄한 멋진 노영아 언니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늘 활기차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멋진 언니입니다. 직무에 책임을 다하는 것 역시 배려라고 믿으며, 직장 동료·후배들을 배려하고 항상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언니의 노력 덕분에 회사에서 어느 부서보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부서에서 굵은일을 도맡아 하는 언니입니다.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고... 옆에 있어줘서 큰 힘이 됩니다. 영아 언니가 있어 세상이 아름다운 건 아닐까요? 멋진 언니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항상 고마워~

<칭찬하는 사람:강효정>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무료**로 연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를 통해 가계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